손해보험

노인 치매환자 5년새 3배 이상 증가

2013. 4. 24

보험/증권
Analyst **이치영**
02. 3779-8828
cylee@etrade.co.kr

장기간병보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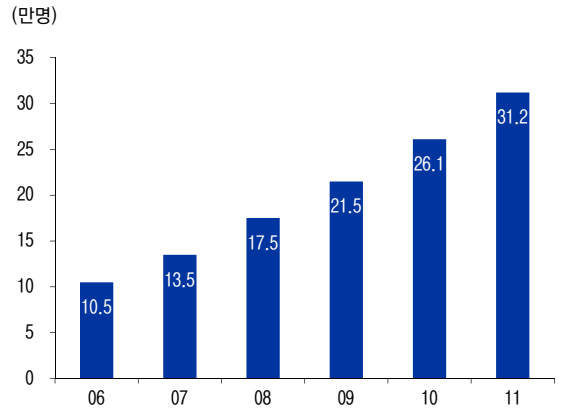
치매 환자가 최근 5년 동안 거의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11년 31.2만명으로 '06년에 비해 196%(20.6만명) 증가했다. 치매 환자가 매년 24.3%씩 늘어나 5년 만에 3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관련 진료비도 급증했다. 이 기간에 치매 관련 총진료비(건강보험 지원비+환자부담금)는 2,051억원에서 9,994억원으로 4.9배 늘었다. (중략) 치매 환자가 급증한 것은 기본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데다 경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의식 수준 향상,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 등으로 과거에 비해 초기 단계부터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하 생략) (매일경제, 4/21)

간병보험은 향후 손보사 성장 동력의 핵심

치매에 의한 간병비용을 커버하는 간병보험(LTC, Long-Term Care)상품은 작년부터 리뉴얼되어 판매중이며, 향후 손보사의 꾸준한 성장 여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장기요양보험 판정등급 연동형 상품의 출시 이후, 동부화재 이하 2위권 손보사들은 월 10억원 수준의 판매고를 꾸준히 올리고 있다. 작년 상품 개발의 배경은, 1)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착으로 위험률의 토대가 잡혔고, 2)치매 보장에 대한 니즈가 각성되고 있으며, 3)당국의 고령자 위험률 개발, 그리고 4)보험금 지급 판정 편의성이 확보된 점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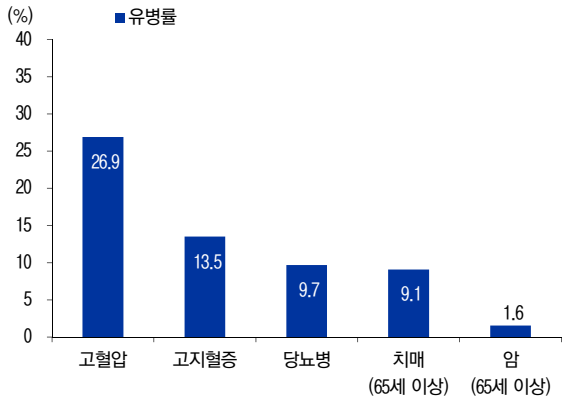
근본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잠재적으로 치매가 발병 가능한 계층이 증가하고, 인구당 치매 발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2년 현재 65세 이상 치매노인 수는 52.2만명에 65세 이상 유병률은 9.1%인데, 2025년경에는 2배인 100만명에 유병률 9.7%에 이를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고령자 암 유병률이 1.6%인 것을 감안하면 점차 간병보험의 니즈가 암보험보다도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림1] 치매환자 증가세 가파르다



자료: 건강보험공단,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암에 걸릴 확률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자료: 건강보험공단,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이치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적용기준(향후12개월)
Sector(업종)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Report(기업)	Strong Buy (강력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50% 이상 기대
	Buy (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15%~50% 기대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절대수익률 기준 -15%~15% 기대
	Sell(매도)	절대수익률 기준 -15% 이하 기대
	N.R.(Not Rated)	등급보류